01

왜 배움에 힘써야 할까?

Why should you strive to learn?

이 장은 배움의 목적과 까닭 또는 그 중요성과 관련된다. 배움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人生斯世
인 생 사 세

◁격몽요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After a person is born into this world, there is no way to become a true person without learning.

*生: 태어나다 *斯: 이, 이것
*世: 세상 *非: 아니다
*學問: 학문, 배우고 물음 *無: 없다
*以: 방법,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爲: 되다 *人: 사람

해설

『격몽요결』「서문」의 첫 문장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 학문이라는 뜻이다. 학문이란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배우고 묻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겉모습이 사람이어도 행동이 사람답지 않으면 금수(禽獸)로 취급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학자들은 공자(孔子) 같은 분도 배워서 성인이 되었다고 자주 말한다. 배움은 이렇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不知道
옥 불 탁 불 성 기 인 불 학 부 지 도 부 지 도
無以爲人
무 이 위 인

◁증홍생설(贈洪甥說)▷

옥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르며, 도리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다.

If you don't polish jade, you can't make things, if you don't learn, you don't know the Way, and if you don't know the Way, you can't be a human being.

*玉: 옥
*不: ~하지 않다
*琢: 쪼다, 다듬다
*成: 이루다
*器: 그릇
*學: 배우다
*知: 알다
*道: 길, 도리
*無: 없다
*爲: 되다
*以: 방법,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배움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인용한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는 『예기』, 「학기」(學記)의 내용으로 배움의 중요성과 까닭을 강조하는 글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선 도리를 아는 일이다. 도리로 옮긴 道의 원래 뜻은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발로 직접 밟고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 규범인 윤리, 도덕 그리고 여러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을 모르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士而不學者 是皆不憚爲禽獸者也
사 이 불 학 자 시 개 불 탄 위 금 수 자 야

◁증홍생설▷

선비이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금수가 됨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Those who are scholars but have not learned are all people who have not minded becoming animals.

*士: 선비 *不: ~하지 않다
*而: 순접과 역접의 접속사로서 여기서는 역접
*學: 배우다 *者: 사람, ~것
*是: 이, ~이다 *憚: 꺼리다
*爲: 되다 *禽獸: 날짐승과 길짐승
*也: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조다, ~이다

해설

선비로 옮긴 사(士)는 고대 전문 관료 집단으로, 문사(文士)와 무사(武士)가 있었다. 공자의 아버지도 하급 무사였다. 사 위의 계급은 대부(大夫)이다.

조선에서는 보통 지배계층을 사대부라 부르며, 그냥 사(士) 또는 사족(士族)이라 일컫기도 했다. 신분이 세습되었고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거나 학행과 덕행이 높으면 벼슬에 발탁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대부는 대체로 학자이면서 관료이고 정치가였다.

선생의 본뜻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배워야 인간이 된다는 말이다. 이 말에 근거해 보면, 지배층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人之身體 不可變短爲長 惟有心志
인 지 신 체 불 가 변 단 위 장 유 유 심 지
則可以變愚爲智
즉 가 이 변 우 위 지

◁격몽요결▷

사람의 작은 키를 크게 만들 수는 없으나, 오직 마음에 품은 뜻만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

You cannot change your stature from short to tall, but only your will of the heart can turn your foolishness into wisdom.

*之: ~의
*不可: ~할 수 없다
*短: 짧다, 키가 작다
*惟: 오직
*心志: 마음의 뜻
*可以: ~할 수 있다
*智: 지혜롭다
*身體: 몸
*變: 바꾸다
*長: 길다, 키가 크다
*有: ~가지고 있다
*則: ~는, 곧
*愚: 어리석다
*爲: 만들다

해설

타고난 사람의 외모나 체격 따위는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준수한 외모는 삶에 장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삶을 좌우하는 더 큰 요인은 마음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씨앗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외모는 늙을수록 볼품없이 변해가지만, 마음만은 갈고 닦아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그래서 사람이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요인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씨에 있다. 그런 마음씨를 갖게 하는 활동이 바로 배움이다.

道非高遠 人自不行 萬善備我 不待他求
도비고원 인자불행 만선비아 부대타구

◁학교모범▷

길은 높고 멀리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 않는다. 온갖 선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다.

Though the Way is not high and far, people do not go by themselves. All kinds of good are inherent to me, so there is no need to look elsewhere.

*道: 길, 진리
*非: ~아니다, ~않다
*高: 높다
*遠: 멀다, 심원하다
*自: 스스로
*行: 가다, 실천하다
*善: 선, 착하다
*備: 갖추다
*我: 나
*他: 다른
*待: 기다리다, 不待는 '~을 기다리지 않는다'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
*求: 구하다, 찾다

해설

인간의 도리와 진리는 높거나 먼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배움의 목적이 행간에 숨어 있다.

"온갖 선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맹자의 성선설의 가르침을 따랐다. 선생 학문의 목적은 그 가르침을 따라 타고난 착한 본성을 잘 발휘하는 데 있다. 배움이란 그 본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도록 갈고 닦는 일이다.

굳이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지 않아도 선을 실천하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어디서 찾을 것인가?

若動於貧窶 而不能行義 則焉用學問爲哉
약 동 어 빈 구 이 불 능 행 의 즉 언 용 학 문 위 재

◁학교모범▷

만약 가난에 마음이 흔들려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다면,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If you cannot practice righteousness because your heart is shaken by poverty, what will you use your learning for?

*若: 만약
*動: 움직이다, 흔들리다
*於: ~에
*貧窶: 가난
*而: 문장을 잇는 접속사
*能: ~할 수 있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義: 의, 의로움
*則: 若~則의 형태로 가정문의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
*焉: 어디, 어찌
*用: 쓰다
*爲: ~하다
*哉: 감탄이나 의문문 뒤에 붙는 어조사

해설

가난이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의를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말했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을 대개 가난이나 생계 탓으로 돌린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한 것 같다. 그래서야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날도 각자의 잘못된 행위를 가난이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름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學成 則爲上者 擧而用之 蓋仕者 爲人
학 성 즉 위 상 자 거 이 용 지 개 사 자 위 인
非爲己也
비 위 기 야

◁격몽요결▷

배움이 이루어지면, 윗사람이 된 자는 그를 등용한다. 대개 벼슬살이는 남을 위한 일이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다.

When one's learning is accomplished, those who become superiors pick up and hire him. In general, government jobs are for others, not for oneself.

*成: 이루다
*則: ~하면, ~하다
*爲: 되다, 위하다
*上: 위, 윗자리
*者: 사람
*擧: 들다
*而: 문장 접속의 어조사
*用: 쓰다
*之: 학문이 이루어진 사람을 받는 대명사
*蓋: 대개
*仕: 벼슬하다
*人: 남
*非: 아니다
*己: 자기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하였다.

옛날에는 학행이 뛰어난 사람이 조정에 발탁되어 벼슬을 하였다. 그 벼슬 자체가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남 곧 백성을 위하는 데 있었다는 설명이다.

요즘 세상에는 배우는 목적이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옛날을 기준으로 그것을 탓할 수도 없는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공직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자리이다. 공직을 이용해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배운 것이 아니다.